

사회



2일 광주시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에서 열린 광주 모 중학교 2학년 A군의 영결식에서 친구들이 고인의 영정 앞에서 울먹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구타·갈취 우리가 알렸더라면...”

광주 자살 중학생 장례식 온 친구들 침묵·방조 죄책감에 울먹

“장난치며 활짝 웃던 모습이 아련합니다. 부디 성격도 매기치 않고, 학교 폭력도 없는 편안한 세상에서 편히 잠들었으면...”

2일 스산한 날씨에 광주시 북구의 한 장례식장에 모인 20여명의 학생들은 친구의 영정 앞에 고개를 떨구며 울먹었다.

이들은 지난 29일 광주의 한 아파트 17층 계단 난간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중학생 A(14)군의 마지막 가는 길을 끝까지 지켜왔다.

사망한지 몇새가 지났음에도 ‘왜 죽었는지’조차 밝혀내지 못한 주검이기에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엄숙했으며 유족의 서러움은 더했다.

또 이날 장례식에 참가한 유족과 학생들 가슴 한 켠에는 어린 중학생을 죽음으로 몰았을 ‘학교 폭력’에 대한 위기감과 경각심으로 더욱 숙연했다.

일부 학생들은 “마음 아파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눈물 보이기가 미안하다”며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겨 물레 눈시울을 훔치기도 했다.

숨진 A군과 친했다는 한 여학생은 “A군이 항상 재미있고 밝은 친구라 다들 좋아했다”며 “자살을 할 정도로 깊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평소 A군과 단짝 친구로 지냈다는 남학생은 “평소 친구의 고민을 알고

도 알릴 생각을 못했다”며 “주변에 알리기만 했더라도 이런 큰 일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함께 할 수 없었던 마음에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가해자로 지목된 친구는 학기 초에도 여러 사고를 쳐 유명했다”며 “전학을 보냈거나 강력한 처벌로 격리시켰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해부터 전해져 A군을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학교 선생은 “평소 A군으로부터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난달 26일께도 이 같은 고민을 이야기했는데”라며 발끝을 흐렸다.

A군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본 부

모는 가슴에 묻어야 할 아들의 관을 붙잡으며 오열했다.

A군의 아버지는 “내 아들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와선 절대 안된다”며 “폭행 피해를 당하면 신고해라, 선생님한테 알리고 정 안되면 경찰에 신고해라”며 울부짖었다.

이날 오후 A군은 유족들과 급우들, 학교 교사 등이 참석한 광주시 북구 효령동 광주 영락공원에서 화장식을 갖고 영면에 들어갔다.

한편 경찰은 성적 고민, 교육관계, 담임교사와 상담 내용 등 A군의 사망 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나원침 (8473) 김장동



나이 문제로 말다툼 직장 동료 둔기 살해

해남경찰, 30대 구속

해남경찰은 2일 사소한 시비 끝에 직장 동료를 살해한 한모(36)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한씨는 지난 25일 새벽 3시에 해남군 해남읍 해리 인력사무소 숙소에서 동료 박모(36)씨와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자고 있던 박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진도의 한 김양식장에서 일을 하다 경찰이 수배전단을 배부하며 추격하자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자수 의사를 밝혀 검거됐다.

경찰은 한씨를 구속 수사하고 사망한 박씨의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서부취재본부 박희석기자 dia@

‘양은이파 재건’ 위해 성매매까지 ‘조양은 후계자’ 등 조직원 4명 기소

1970~1980년대 전국 3대 폭력조직 중 하나로 활동한 ‘양은이파’의 재건을 노리던 조직폭력배들이 일망타진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중 부장검사)는 유혹주점과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폭행과 금품 갈취, 성매매 알선을 일삼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조양은(61)의 후계자 김모(50)씨 등 양은이파 간부와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조양은은 1970년대 양은이파를 조직해 ‘서방파’, ‘OB파’와 함께 국내 폭력계를 삼분했다. 조직 수괴급인 김씨는 1978년 양은이파 결성 때부터 활동했으며 2009년 조양은에게서 공식 후계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1989년 조양은에게 반기를 든 부두목 박모씨를 흉기로 난자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4년5개월 간 복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다른 부두목 정모(46)씨 등과 함께 조직 재건을 목적으로 폭력배 40여명을 규합해 톨살롱 네 곳과 모텔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에 톨살롱을 차려 331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78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검찰은 김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2004년 교도소 수감 중 작성한 자서전 초본을 입수했다.

‘보스의 전설은 없다’라는 초본에는 1989년 9월 순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양은을 특별면회해 “부두목 박모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조양은은 1996년 박씨에 대한 살인미수 공범으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으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을 저질렀을 뿐 조양은과는 무관하다”는 김씨의 허위증언 덕분에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연합뉴스

‘5·18 공법단체’ 추진 갈등

일부 회원 “법 개정안 발의 서명 안했다” 반발

공법단체인 5·18민주유공자회 설립 방안이 포함된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발의 관련 일부 5·18 단체 회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5·18 민주유공자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원 30여 명은 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참배식을 찾아 “5월 공법단체 발의에 대해 유공자회와 부상자회는 서명을 하지 않겠다”며 항의했다.

이들 회원은 “5월 단체 중 하나가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하고 있을 뿐 유공자회와 부상자회는 공법단체 설립추진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의 묘지 참배를 저지했으며 27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공법단체 추진을 대표 발의한 김재균 의원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김재균 의원 등 국회의원 27명은 지난 29일 5·18 민주유공자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공자회와 부상자회는 서명을 하지 않겠다”며 항의했다.

이들 회원은 “5월 단체 중 하나가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하고 있을 뿐 유공자회와 부상자회는 공법단체 설

시신 부검... 타살 흔적 없어

광주경찰, 외상 없고 일부 명자국 발견

지난 29일 광주의 한 아파트 계단 난간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중학생은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북부경찰은 사망한 A(14)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외부의 힘이 몸에 가해진 흔적이 없고 외상이 없어 타살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고 밝혔다. 신체 일부에서 멍이 일부 발견됐지만 이 역시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보기 힘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군의 부모가 타살 가능성을 주장함에 따라 의혹 해소를 위해 가검물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군이 자살을 결심하기 까지 학교 폭력이나 성적 부

수백억 횡령 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 영장

정치권 유입 여부 수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2일 한국방송에 송출진흥원 자금 수백억원을 착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진흥원 이사장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3~4년간 방송예술진흥원과 부설 한국방송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학비 등으로 받은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이 과정에서 수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매년 진흥원과 아카데미 원생 1천여명을 모집해 학기당 250만~450만원의 학비를 받아왔으며 이 중 일부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빼돌린

응급의료 파업 금지 합헌

헌재 결정

응급의료 분야의 파업을 금지한 노동관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같은 공익필수유지업무의 정의를 행위 금지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42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권 행사는

찢질방서 열쇠 훔쳐 현금 슬쩍

○찢질방에서 다른 손님의 열쇠를 훔쳐 옷장을 탈고도 벗어 잠을 청하며 새해를 맞이하던 간 큰 30대 절도범이 경찰서 행.

○2일 광주서부경찰에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모(31)씨는 지난 1일 오전 6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모 찢질방에서 잠든 A(18)군의 옷장열쇠를 몰래 훔쳐 옷장 안에 있던 현금 12만원을 훔쳤다는 것.

○이씨는 미리 준비한 손톱 가위로 A군의 손목용 열쇠고리를 잘라내 법정을 저질렀으며,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이 탐문을 벌이자 훔친 열쇠를 황급히 숨기다가 덜미.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대학편입 정원

대폭증가!

2013학년도 대학편입을 위한 초석다지기 과정, 편입개론과정 대개강!

편입 1:1 문자상담 : 010-7766-1254

대학편입이란?

수능결과를 뒤엎는 또한번의 찬스!!

재수	vs	편입
1학년입학 / 4년재학		3학년입학 / 2년재학
고등교과목 전과목 (약 16과목)		영어(인문) / 영어, 수학(자연)
각 군별 1회 지원		대학별 지원(최대 20회 이상 복수지원 가능)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062)227-8088

www.kimyong.co.kr 개강 : 2월1일